

연중 제 4 주일(사회복지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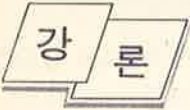
제 1 독서 : 예레 1, 4-5, 17-19

제 2 독서 : 1고린 12, 31-13, 13

복 음 : 루가 4, 21-30

순정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고린 13, 7)



사회복지와 구원사업



오성기 신부 / 사회복지사목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의 정신으로 교구의 사회복지회와 여러 복지시설 단체에 몰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본당에서 복지회활동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많은 교우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사회복지주일을 맞아 우선 교구 사회복지회 활동 소개 겸 금년도 사목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도의 사회복지회 기본방향은 교구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고통받으며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연대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당 신자들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의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본당의 사회복지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정·발전시키며, 교구 산하의 계반 사회복지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목목표는 첫째, 본당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사목회 임원, 제봉사단체 임원 및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본당 신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여 본당 안에서의 사회복지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용입니다. 자원봉사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기존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 학교 개설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도모할 것입니다. 셋째, 후원회 조직의 강화입니다. 본당 사회복지활동에 기초하여 교구내의 각 복지활동의 영역에 있는 복지시설 단체와 재가 복지를 돕고 있는 통합된 후원회 조직인 “사랑의 다리” 회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신자 1세대 1구좌 운동 전개, 후원회원 교육 및 피정 등의 활동을 통해 조직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법인과 복지시설의 기반 확립 및 내실화입니다. 법인 및 산하 복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건조성 및 법률적, 행정적 관련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구 사회복지회활동 재정립입니다. 무지개가족, 영보 은혜의 집, 작은 자매의 집 지원과 공부방 운영 내실화 및 재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사목활동의 강화 그리고 나환자 사목, 병자사목의 활동방향을 개선할 것이며, 특수주일 모금활동과 긴급 구호활동 및 사회복지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형제적인 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입니다.

교회 사회복지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라는 교회 본연의 신분에 대한 질문에 어떤 응답을 하는가에 따라 판명됩니다. 만일 본당들이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지역 주민들,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맞아들여 각종 계획과 활동을 실시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하느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풍요로운 보화를 드러냄으로써 가난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 사업에 힘껏 동참합시다.



새해 덕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가꾸자

한상갑(바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천명이 죽었다. 다치거나 산 사람들도 그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먹을 물조차 제대로 없었다니, 그야말로 생지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불탄 건물들과 부서지고 뒤틀린 채로 널부러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의 인사를 드린다.

■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불길에 치솟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아마 보통사람들은 아무런 경황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맨몸으로 허둥대기 마련일 것이다. 그래도 이번에 있었던 일본의 지진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착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어떤 할머니는 건물더미에 묻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거의 하루 동안 동요를 계속해서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남편도 살아났다고 한다. 그 넉넉한 마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근년에 들어 이 지구상에는 지진과 홍수, 그리고 폭설과 한파 등의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진은 지하 내부의 급격한 변동으로 생기는 일이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침착한 대응과 그러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기술의 개발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천재지변에는 다소간 인간의 탓이 있다고 한다. 대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무절제한 인간의 환경파괴가 바로 그 첫째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전쟁보다는 환경파괴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 먹을 물은 있는가?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에 농사나 제대로 지을 것인가 하고 걱정들을 한다. 그러나 정작 더 다급한 것은 먹을 물이다. 눈이라도 많이 내려야 할텐데 그마저 소식이 뜸하다. 저수지와 강바닥이 마르고, 벌써부터 제한급수를 한다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렵기 그지없다.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34년 전이다. 해방 이후부터 자유당 말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어렵게 살아왔다. 그래서인지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이때 생긴 국민교육헌장은 오직 능력과 실질을 숭상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진리와 정의가 빠진 한 나라의 교육헌장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보였다. 텅달아 모든 가치기준도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모아졌다. 물론 경제성장도 있었다. 여유가 조금 생기니 기회만 닿으면 흥청망청 쓰고 노는 과소비 풍조에도 중독되기 시작했다. 이러다 보니 성경을 읽기 위해 서라면 촛불을 흠쳐도 된다는 가치관이 팽배하고 만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처지에 이르고 만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처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세계화가 문제가 아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내야 할 때이다. 국제화니 세계화니 해서 신기루 찾기에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그러니 이번 설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어려웠던 옛날 이야기로부터 덕담을 시작하자. “근검하고 절약하라”고. “내일을 구만두고 당장 오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자”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살면서 깨끗한 물, 청량한 공기를 숨쉴 수 있는 지혜를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원래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던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는 일.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숲정이 산책



산다는 것은 의미 가득한 것



박동진 부제 / 평화동 천주교회

우리 모두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온갖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어도, 가장 밑바닥에서는 ‘도대체 사람은 살아갈만한 이 유가 있는가’, ‘삶에는 의미가 있는가’로 뭉뚱그려진다고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그 고민은 여지없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힌 이 문제들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군복무를 마치고까지도 여전히 이 문제들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에 대한 답변들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들이었기에,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쭙잖은 답변들에 기대며 살기는 힘들어졌고, 기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만남도 그야말로 쓴맛이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만난 한 선배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마냥 기다리면 언젠가 풀리려니 하는 기대는 하지 마라. 네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들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찾은 것이 장애인들과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과 만나면서 문제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 순간에 장애를 입었는데, 그걸 부여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처럼 곤욕스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야 하는 삶은 너무 버거운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세상은 왜 이런 고통이 자리하는 것입니까?’라는 물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애인 형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변화시키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 장애를 입었을 때는 언젠가 정상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에게 절대적인 희망으로 자리하였지. 그런데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의 모든 것은 온통 무너져 버렸어. 가족들은 나의 초라한 모습을 힘겨워했고, 나 역시 내 삶이 원망스러운 뿐이었어. 장애인 공동체로 초대되고 난 이후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내 삶은 초라할 따름이었어. 그런데 이 안에서 더불어 살다 보니, 차츰 나는 나를 받아들여지게 되었어. 때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꺼리는 나의 몸뚱아리에 대고 농담도 하게 되었고, 추운 날 따뜻한 햇볕 한줄에 내 몸을 맡기면서 주님께 감사할 줄도 알게 되었지. 또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자그마한 것에서도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러니 산다는 것은 정말 의미 가득한 것 이야.”

이 말은 삶에서 나온 이야기였고, 그 삶을 바라보는 저는 그 안에서 주님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주님과 살아가며, 세상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저 역시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주님과 화해하고, 저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제직을 앞둔 지금도 ‘산다는 것은 의미 가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저 역시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1995년 전주교구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힘입어 저희 교구에서는 6명의 부제가 사제로, 4명의 신학생이 부제로 서품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함께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 서품자들의 첫미사 일정과 좌우명으로 택한 성구



김정민(라자로)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루가 5, 16)

설레임과 두려움 속에서 사제인 제 자신을 지켜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을 향한 향구한 기도뿐임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한껏 불사르듯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언제나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첫미사 : 2월4일(토) 오전10시30분 서학동 천주교회



김광석(요아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 20)

나의 삶 안에서 관념적이 아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모든 사람을 열심히 사랑할 것입니다.

첫미사 : 2월3일(금) 오전10시30분 원평 천주교회



백승호(토마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 20)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정말 힘든 길을 가시는군요.”하고 물을 때 위 성구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제, 아무것도 아니면서 또한 모든 것인 사제로서 살기 위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 가겠습니다.

첫미사 : 2월3일(금) 오전10시30분 중앙 천주교회

● 부제
● 서품자

여혁구(아우구스티노)

연지동 천주교회

오정선(요셉)

주현동 천주교회

최종수(조윤호 요셉)

임실 천주교회

이상용(야고보)

서신동 천주교회

장의용품 판매 안내

당 조합에서는 장의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특히 비신자에게 염·입관을 무료로 봉사해 드립니다.

☎ 주간 54-2861, 54-1594
야간 51-1688, 855-7817
영동동 천주교 신용협동조합

사상·팔상 체질 감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권재갑(다두)
정원미(클라우디아)

중화산동2가 파출소 맞은편
☎ (0652)224-6207~9
황명사상간강회

40년 전통 성심당 한약방

이상범(필로리아노)

중앙시장 육교 밑

☎ 252-4544, 85-0173

성신당 한약방

이홍재(요셉)

우아동 기린중학교 정문 옆

☎ 245-9787~8

사제 · 부제 서품식



일 시 : 95년 2월 2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 천주교 전주교구 중앙 성당

주례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



송년홍(타대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 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마르 10, 45)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착한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미사 : 2월3일(금) 오전10시 시기동 천주교회



박동진(베르나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갈라 5, 1)

주님의 십자가는 제 자신의 전 존재를 투신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나아가려는 사제직은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로움이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자유를 살고자하는 것입니다.

첫미사 : 2월3일(금) 오전10시30분 평화동 천주교회



박인근(요한 보스코)

“내 안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아닌 삶을 준비했고, 이제는 세상 안에서 살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도, 어떤 생각도, 항상 감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항상 웃는 얼굴로 그리스도를 더 큰 분으로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첫미사 : 2월3일(금) 오전10시30분 오룡동 천주교회

요십이 (1118) 김병오



임시교사초빙

1. 학과 및 인원 : 음악과 1명 2. 제출 서류 : ①자필이력서 ②자격증 사본 (원본 지참) ③대학교 성적증명서 ④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⑤호적 등본 각 1통 3. 서류 제출 마감 : 2.4 (토) 12 : 00 4. 제출처 : 해성중학교 서무실(☎224-6114) 학교법인 해성학원

제22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1. 개최일시 : 2.11(토) 오후 1시30분
2. 개최장소 : 전북예술회관4층(공인장)
3. 부의안건 : 1994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견 외 7건
1995. 1. 29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병 오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 75-0550

기아 자동차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 상 역(요셉)
☎(0652)87-6301~6
호출기 015-685-0312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퐁소)
☎ 88-7717~8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소자 모임

· 일시 : 2월5일 오후 2시
(매달 첫째 주일)
· 장소 : 인보 성체 수녀회 본원
(전주 중노송동 2가 361)
· 문의 : (0545)970-2000, 970-2316
인 플레멘스 신부

변원구 한의원

변 원 구(에로니모)
허 정 자(수 산 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옆
☎ 252-1783
253-6355~6

우리의 사랑을 지구촌 끝까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위의 불우 이웃은 물론 전세계 기아민과 난민들을 위해 보여 주신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르완다 난민들을 위한 특별모금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모금운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평화방송과 신문 및 가톨릭신문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르완다 난민돕기 운동에는 가톨릭 신자들만이 아니라 선의의 모든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모든 이 안에 잠재하고 있는 크나큰 삶의 힘이라는 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고 하셨습니다(마태 26, 11; 마르코 14, 7; 요한 12, 8). 평소에 남을 도와 주면서 살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실천은 일시적인 운동이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국가와 민족의 차원에서는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문화적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 복지활동은 국가와 민족의 도덕적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나와 공간적으로나 혈육으로 가까운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근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구세주의 고귀한 피로 구속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국경을 넘고 민족과 종교 등 모든 한계를 넘어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특성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 연시에 많은 선의의 국민들과 기업 및 언론과 종교단체들이 정부와 하나가 되어 이웃돕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제 좋



은 관습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정 넘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렬은 우리 민족이 지닌 크나큰 자량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이 넘치는 인정의 손길은 이제 지구촌 구석 구석으로까지 뻗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활동을 통한 다른 민족과 국민들과의 교류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도 정부의 공식적 외교 활동에 버금가는 힘과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른 선진국가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하는 하나님 사랑의 힘을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까운 자기 가족과 친척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관심이 국내에서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

리므로 자기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도 이제는 인류 전체의 복지를 생각하는 사랑으로 극복되어야 지역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아직도 수천 만명의 난민이 자기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10억에 가까운 인구가 아직도 절대 빈곤과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하고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생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한 지역의 문제는 곧 전 지구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촌 다른 지역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 준다고 해서 국내 불우이웃돕기 열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이 지닌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 심고 키우고자 하는 사랑의 문화는 사랑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지구촌 끝까지 나아갑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 석 회 주교

이 엠 학 원

<초·중·고>

김 해 근(마티아)

동아아파트 앞, 육교 옆

☎61-0909, 466-0909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 병 철(베드로)
박 경 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43-1413

효 자(삼천행운APT 앞) 221-8331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숙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금강 자동차 유리

증장비 유리·카 악세사리
시트카바

이 경 식(바오르)

양 금 남(실비아)

덕진구 팔복동 정비공단(대우정비 옆)

☎ 213-1773

호출기)012-687-0992

교구 소식

❖ 교구청 규정 휴무

· 때 : 1월30일~2월1일

❖ 95년 부제·사제 서품식

· 때 : 2월2일(목) 오전10시30분
· 장소 : 중앙 성당
· 주례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2월4일(토) 오후3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사목교서 연수

· 때 : 2월5일(일) 오전10시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대상 : 군산, 임순남, 무전장 지구 분당 사목위원

❖ 전주지구 성서교실 개강

· 때 : 2월10일(금)
· 장소 : 전동 성당, 교육관
· 강의내용 : 바오로서간, 요한묵시록
· 문의 : 교구 사목국(85-0041)

❖ 성모 기사회 모임

· 때 : 2월4일(토) 오전10시
· 장소 : 효자동 성당

❖ 전주 제14차 선택 주말

· 때 : 2월10일~12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대상 : 젊은 미혼 남녀
· 회비 : 38,000원
· 접수·문의 : 85-3637(조형식)

❖ 푸른군대 모임

· 2월2일 사제서품 관계로 없습니다.

❖ 레지아 임원연수(2차)

· 때 : 2월4일~5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에 참실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헌혈
· 때 : 2월5일
· 장소 : 중앙, 호성동, 창인동 성당

❖ 축! 영명

31일(성요한보스코) 강명구 신부님

● **성소모임**

❖ 동정 성모회

· 때 : 수시로 성소상담
· 문의 : (0652) 222-5269

❖ 성바오로딸수녀회

· 때 : 2월5일 오후2시
· 곳 : 성바오로서원
· 문의 : (0652) 252-3398

❖ 서울성가소비녀회

· 때 : 수시로 성소상담
· 문의 : (0652) 223-3822

❖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 때 : 수시로 성소상담
· 문의 : (062) 510-3110~1

■ **권해드리는 책**

● **꿈보다 현실이 아름답다**

배문한 / 6,000원 / 진미디어
작년 8월,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돌아가심으로써 이웃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배문한 신부님의 유고집

● **사랑은 죽음보다**

김홍신 / 5,500원 / 여정
저자 김홍신이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있던 소년시절부터 대학시절까지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심각하게 써내려간 자전적 소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식수의 마지막 보루, 지하수

지하수는 물생명의 마지막 보루와 같다. 그러나 지표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었을 때 지하수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음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수질오염이 심각해지자 지하수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하수를 고갈·오염시키는 것은 대규모의 지하수 개발이다. 사람들의 '좋은 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자 각종 주류회사들은 너나 없이 지하수 개발에 열을 올

리고 있고, 생수시판 허용까지 겹쳐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지하수가 개발될 예정이다.

또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온천도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 된다. 현행의 온천수 법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정의되어 있어 지하수 고갈의 가능성을 주고 있다. 지하수의 고갈은 오염으로 이어진다. 지하수를 퍼올리고 난 그 자리에 압력이 낮아져 주변부의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자연산 활어 전문점

23호 회 센터
도다리, 농어, 광어

(차량대기, 전화주문 신속배달)
최금석(요셉) 윤은숙(소피아)
송천동 직판시장 2층

☎ 75-5411

호출기 012-682-0046

덕진유아놀이방

모집대상 : 0세~3세까지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돌봐드립니다

이 인 자(엘리사벳)

덕진 야구장 후문

☎ (0652)254-1598

예정피아노·미술학원 원 아 모 집

교육내용 : 음악, 미술, 몬테소리교육
(강사-각 과목 대학 전공자)

* 차량 운행합니다.

문 숙 회(로사)

안골 사거리 거성프라자 앞

☎ 242-4423

영창피아노전북대리점

· 각종 피아노 교환, 수리, 조율
서비스전문센터
· 신용카드 환영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갈매봉 사거리와 다가동 파출소 중간

☎ 84-6085, 223-5823

군산가방

여행용, 학생용, 서류용, 휴대용,
신혼합, 각종 가방 일절 및 현대
지갑(패스)일절, 장소이전 확대

엄 총 근(미카엘)

진 진 회(요안나)

군산시 평화동 158번지

☎ (0654)445-5872

인삼, 홍삼, 태극삼, 영지, 운지, 알로에, 솔잎
엑기스, 녹차, 토종꿀, 기타 건강식품

토종건강식품

감자와 효도선물 세트 다량 구비

이 상 호(수한)

양 숙 자(수산나)

우이3가 신동아 아파트 입구

☎ 243-238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4주일
- ◎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있음
- 1. 설 대축일 미사시간 안내: 새벽 5시30분
- 2. 사제 서품식: 2일 전 10시30분, 중앙성당
- 3. 주의 봉헌 축일: 2일 저녁미사
* 가정초 축성 및 제대초 봉헌있음
- 4. 병자 봉성체: 3일 오전중
* 환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5. 사목회 상임: 3일 저녁미사 후
- 6. 모임: 울뜨레아(5일 장엄미사 후)
- 7.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반회장 모임은 9일로 연기합니다.
- 8.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 9. 금주 청소: 중노 27, 남노 1만
- 10. 차주 청소: 남노 2, 3만

* 서화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 축! 사제서품: 장소-중앙성당
일시-2월2일(목요일) 10시30분
* 김정민(라자로)부제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 미사: 장소-서화동 성당, 일시-2월4일(토요일) 10시30분
(영적 물적 예물을 접수합니다)
- 2. 설 대축일 미사: 새벽 6시, 오전 10시
- 3. 2차헌금: 오늘은 사회 복지 주일입니다.
미사 후 2차헌금이 있습니다.
- 4. 자모회: 2월1일(수요일) 오전 10시30분
- 5. 꾸리아: 차주 2월5일(일요일) 오후 2시
- 6. 교무금 카드: 교무금 카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토, 일요일을 피해 한가한 평일을 이용해서 찾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 전례 안내: 공식미사 해설-유용산(바오로)
독서①김영관(요한보스꼬)
독서②최춘순(마리아)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 1.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오늘
 - 2. 설 합동 위령미사: 31일(화) 새벽 6:00, 아침 10:30
* 선영들을 위해 정성드려 봉헌합시다(사무실에 접수)
 - 3. 초 축성: 2월2일(제대용 초와 가정용 초를 수녀님께 신청바랍니다)
 - 4. 성체 강복: 2월2일(목) 저녁미사 후
 - 5. 성시간: 2월3일(금) 저녁 7:00~8:00
 - 6. 화해성사: 2월4일(토) 저녁미사 후
 - 7. 대견회: 2월5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8. 사목회: 2월5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9. 사제, 부제 서품: 2월2일(목) 중앙성당 오전 10:30
 - 10. 성우회 임원개편: 회장-김용식(요한) 부회장-이현기(안드레아) 제부-조규설(요왕)
 - 11. 자모회 임원개편: 회장-손화순(아네스) 부회장-허영림(안젤라) 회계-이진안(아네스) 서기-민덕순(미카엘라)
 - 12. 성가정 성공사례 신앙 체험수기 입선: 이정희(마르타)
박승주(프란치스코)
- 성당 청소: 4일(토) 천사의 모후Pr, 사도의 모후Pr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이상은 부부
봉헌-김옥림 가족
차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라경섭 부부
봉헌-이갑규 가족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연중 제4주일
- 1. 금주: ①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②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 2. 설날 대축일 미사: 새벽 5시30분, 오전 9시
- 3. 사제 및 부제 서품식: 2월2일 오전 10시30분, 중앙성당
- 4. 성모성심회: 2일(목) 오후 3시
- 5. 병자 봉성체: 3일(금)
- 6. 차주: ①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계속글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⑥보좌신부님 송별미사(공식미사)
- 7. 감사합니다: ①심원조 감사헌금 505,000원(익명)
②감사헌금 20만원(익명), 10만원(주경자, 쟈마)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오늘은 연중 제4주일 및 사회복지주일-2차헌금
- 1.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4일(토) 저녁
③꾸리아 및 요셉회-다음주일
- 2. 사제 및 부제서품: 2월2일(목) 오전 10시30분, 중앙성당
- 3. 성체강복 및 성시간: 2월2일(목) 저녁미사 후
- 4. 성가대 임원 개편: 단장-김영신(요셉) 부단장-이춘봉(리디아) 서기-유만순(크리스티나) 회계-주영래(크리스티나) 수고하시겠습니다.
- 5.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사제양성 후원회비 납부의 날
- 6. 설날 합동 위령미사: 31일(화) 오전 10시, 에볼접수-사무실
- 7. 제대초 봉헌: 2월2일(목) 접수-사무실
- 8. 축! 혼배: 신랑-최민호(바르톨로메오)
신부-정현희(실비아)
29일(오늘) 오후 1시, 중앙성당
- 9. 금주 청소: 성실하신 동정녀Pr.
- 10. 차주 청소: 천주의 모친Pr.
- 8.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강덕용 ②이석남
봉헌-한동욱씨 부부
설날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박귀철 ②이순자
봉헌-양주태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남현준 ②김갑자
봉헌-남현준씨 부부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장삼근

- ◎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 석방을 일리라, 주께서 나를 보내셨도다.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실시
- 1. 설 명절 합동 위령미사 봉헌: 새벽 5시30분, 오전 10시30분
- 2. 주의 봉헌 축일: 초 축복식-2월2일 후 7시30분, 제단과 가정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초 봉헌바랍니다.
- 3. 사제 서품식: 박동진(벨라도) 2월2일 중앙성당, 전 10시30분
- 4. 성시간 성체강복: 2월2일 저녁미사 후
- 5. 박동진(벨라도) 새 신부 첫미사: 2월3일 전 10시30분, 제단제자예물준비, 전신차 봉헌 준비
- 6. 유아 세례: 2월4일 후 2시30분-사무실에 4일 오전까지 신청
- 7. 회의: ①부녀회-2월1일 어머니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일 후 2시30분
- 8. 전입을 환영합니다: 코요롱APT 이기권(아오스당) 1/802 ☎222-6144 김수남(리디아) 9/1004 ☎222-8393 조계웅(안토니오) 5/506 ☎222-6809